

베드로의 변환 [Transformation of Peter]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22:31-32]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1. 베드로의 영적 시력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시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서슴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마태 16:13],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마 16:14].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 16:16].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7]”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petros: 작은 돌], 이 반석 [petra: 큰 암반]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하는 한 제자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몇몇 교파들은 이 주님의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밝히 보이시어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영적 계시의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임을 바로 알고 이를 기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신에 쓰기를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였으며 [벧전 2:7], 우리는 ‘살아 있는 돌’ 즉 petros 들로서 모퉁이 돌 반석 [Petra]이신 주님의 위에 세워진다고 하였는데 [벧전 2:5], 작은 돌맹이인 자신도 포함하여 한 말씀입니다. 자신은 커다란 암반 같은 주님께 비하면 다만 작은 돌맹이 이며, 주님의 암반 위에 다른 돌맹이들과 함께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로서 세워지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교회의 한 직분을 가졌다 하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는 작은 돌 하나임을 깨닫는다면, 사도 베드로가 갖게 된 바른 시력, 겸손한 시력을 공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베드로의 실패

그러나 베드로의 이 바른 시력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한 후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환 과정을 겪은 후에 얻게 되었다고 유추합니다. 본문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만찬 동안에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자신이 그날 밤 배반당하여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죽게 되면 그들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논쟁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얼마나 온유하신 선생님이십니까?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날 밤에 주님을 세번이나 부인할 것임을 예언하시고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권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있나이다”고 단언했습니다. 남들은 주님을 배반하여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것을 공언하는 자신 만만한 제자 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고 나면 내가 이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듯 자신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주님께서 핏방울 흘리시며 고통의 기도를 하시는 동안 잠을 이기지 못했으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벨 정도로 의분에 차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체포되어 재판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힘 앞에 연약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죄수처럼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면서 병사들로부터 모멸과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영적 시력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너도 저와 한 패거리이지?”라는 다구침에 당혹하여 자신도 모르게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 만만했던 베드로의 영적 시력과 과신이 모두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3. 은혜로 온 회복과 변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시가 약해지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미리 보시고 그 실패 후에 회복되어 다시 일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여러번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만이 주님처럼 물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처럼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 했지만 헛된 수고만 했습니다 [요 21:3].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이나 물으시고, “네 양을 먹어라”고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요 21: 15-19]. 주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를 회복시키시고 앞 날에 할 미션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는 참된 겸손을 통하여 은혜가 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한 신자의 영적 성장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고, 그 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그 분의 권능 앞에 참된 겸손으로 굴복하고 새 사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 성장 역시 각 교인이 이런 변환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큰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룩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커다란 잘못이나 죄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르게 회개함으로써 당신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 짓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죄 씻음과 의롭게 됨은 올바른 회개와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사탄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아직 죄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느냐? 너는 위선자이고 엉터리 크리스찬이야!”라는 힐난을 지속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바탕 위에 베드로의 신앙은 굳건히 수립되어 초대 교회의 지도자의 하나로서 기둥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15-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겠으나, 사도 베드로처럼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이 보여준 영적 변환의 모범을 본 받아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 권면합니다. 아멘.